

보충교육서비스 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실태

The Rate of Credit Card Payment for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Korea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부 교수 김 혜 선
호남대학교 생활과학과
강 사 김 숙 향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Heaseon

Dept. of Household Science, Honam University

Lecturer : Kim, Sookhyang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ate of credit card payment for private education. The results of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credit card handling problems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leading toward improvements in income transparency, increase in tax burden equity and long-term economic welfare improvement for individual households.

424 households out of 586 household that were surveyed in September of 2002 had 1,700 cases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67 of the 1,700 cases that did not have expenditure records were removed from the analysis.

Only 3.67% out of 1,633 cases were paid by a credit cards and the amount of credit card payment were only 5.65% of the total amount spent for private education. The average fe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that allow credit card payment was higher than the fees of private institutes which don't allow a credit card payment or those of private institutes where consumers don't know whether a credit card payment was

Corresponding Author: Heasean Kim,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540-742

Tel: 061-750-3672 E-mail: sunny3672@web.suncheon.ac.kr

allowed. The average fee of private education paid by credit cards was 34,465.46 won higher than that paid by cash.

Credit card payment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social issue with respect to fair tax collection and tax burden equity since most private educational services operate in fairly small sizes and are offered by the self-employed, and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is a fairly large proportion of the household income. It is also important for consumers if credit card acceptance expands alternatives that consumers can choose in private education. Therefore, credit card payment should be encouraged in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To do this, private education providers should be forced to join a credit card payment service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 regulation that prohibits the refusal of credit card payments should be required, and credit card service charges of private education providers should be incrementally decreased. Also, consumer education and public promotions for credit card use instead of cash in paying for private education fees are recommended.

주제어(Key Words): 신용카드결제(credit card payment), 사교육기관(private institution for education), 세금징수(tax collection)

I. 연구의 필요성

신용카드는 현금에 비해 소비나 사용이 간편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편리함으로 금전관리의 융통성과 함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여 현대 사회에서 제 3의 화폐로 불리며 소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화의 가격과 소득 이외에 구매당시 재화대금의 지불가능성은 소비자의 재화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불을 사실상 상당기간 유예하여 줌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현금이 없어도,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더라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들이 신용카드가 소비지출의 증가나(임정빈 외, 1997; 김정훈, 1991; 이기춘, 1976) 충동구매와 관련이 있는 것(이영호, 1994; 이영호·지영숙, 1984)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신세계 백화점의 카드발급을 시작으로 2002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급개수는 8만 9천개를 넘어섰고(여신금융협회, 2002) 신용카드의 연간 이용금액도 4,433,675십억을 넘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공공교육과정 이외에도 취학 전 아동, 초, 중등학교에 다니는 미혼 자녀를 위한 입시 및 보습학원, 특기, 재능학원, 학습지, 통신과외 등 많은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금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민간교육서비스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요금의 지급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는 가게의 소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지출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불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신용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요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결제하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는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의 신용카드 수납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거시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개별 소비자가계의 경제적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보충교육비 지출규모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은 가계의 제 1순위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계의 중요과업이 되고 있다(이승신, 2002).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원인데 비해 사교육비가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계측면에서 보아도 가계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2000년도 총과외비 규모는 약 7조 1천 2백 7십 6 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도 과외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55.8%가 과외학습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지출한 과외비는 학생 1인당 평균 88만 9천원, 과외를 한 학생 기준으로는 평균 133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과외의 종류는 입시 및 보습학원(28.8%), 특기/재능학원(25.6%), 학습지/통신과외

〈표 1〉 보충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주이 (명목지출액)

연도	보충교육비(전가구)	보충교육비(근로자가구)
2001	87,309	82,260
2000	78,804	74,736
1999	63,986	63,252
1998	59,921	55,698
1997	72,528	64,437

출처: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1. 도시가계연보에서 보충교육비는 “학습의 보충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체능학원, 태권도 학원, 기타 체육계 학원, 사무·전산학원, 기타 보충교육(재학생보충수업비, 개인교사과외비, 기타학생이 정규학교 수업시간 외에 학교내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지출), 도서관, 기타 교육비(학교기부금, 진학원서대, 학교적성검사, 기타학교잡부금)를 의미한다.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가계내의 교육비 중에서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충교육비의 요금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에서의 이용요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요금의 지급은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미가맹이나 신용카드 결제거부, 또는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의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제한은 결과적으로는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근로소득가계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소득공제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가계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사용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보충교육서비스의 요금을 얼마나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및 활성화가 민간서비스교육기관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과외비

(1995년 불변가격)

조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 보호원	교육인적 자원부		도시가계연보			
	연도	1982	1985	1990	1994		1998	1997	1999	2000	1985	1990
월평균지출	28,328	53,522	82,966	121,061	167,268	87,184	55,491	57,031	14,250	42,353	78,553	103,262

출처: 이성림(2002)에서 재인용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보충교육서비스기 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결제현황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는 원천적으로 과세권에서 누락되는 음성·탈루소득을 과세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제도(우옥현, 2001)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원 공제제도, 어떤 카드로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측면에서는 근로소득가계의 소득공제제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재와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및 매출액의 노출을 꺼려 카드 가맹이나 수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

다(우옥현, 2001).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신용카드의 취급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들이 있었으나 연구의 범위가 근로소득공제이므로 이 제도로 한정해서 이론적 고찰을 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정부는 1999년 9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001년도부터는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규정 요약

(1995년 불변가격)

구분	공제	비공제
가족사용액	동거, 배우자, 부모, 자녀의 카드 사용액 합산공제	비동거인 경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별도 소득세 신고가족
카드종류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처	물품, 서비스 구매대금	현금서비스, 회사에서 비용처리 되거나 외국에서의 사용액
이중공제대상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각종공과금(국세, 전화료, 전기료, TV시청료 등)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안내", 2001.

〈표 4〉 신용카드 산업의 증가 추이

(단위: 10억원, %)

연도 (천매)	카드수 (천점)	가맹점	국민총소득 (A) (당해년가격)	국민처분 가능소득 (B)	민간최종 소비지출 (C)	신용카드 이용금액 (D)	일반	할부	현금서비스	D/A (%)	D/B (%)	D/C (%)
2001	87,330	12,627	5,438,746	4,800,297	3,242,263	4,433,675	1,283,527	473,554	1,453,159	32.3	36.6	43.6
2000	57,881	8,611	5,192,274	4,582,158	2,991,218	2,249,082	555,949	239,974	267,659	15.3	17.4	26.0
1999	38,993	6,192	4,765,976	4,149,173	2,711,365	126,046	300,631	124,050	483,146	8.9	10.3	15.7
1998	42,017	4,649	4,431,270	3,941,019	935,049	133,671	206,695	101,613	327,259	14.3	16.1	25.4
1997	45,705	4,257	4,431,270	4,004,985	1,132,256	156,778	243,207	138,593	339,353	16.0	18.0	28.3

출처: 국세청(2001)

그리고 제 34차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에서는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사업자들이 수취를 꺼려하는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보완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욱현(2001)은 도시 근로자의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로 거래될 수 있는 요소들이므로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시키고 조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 중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계가 지출하는 보충교육비의 신용카드 수납 여부는 가계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결제 현황

우리나라는 현금수수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거래 사실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사용자 3자간의 상호검점 및 결제기능으로 인해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과표양성화와 세무부조리 차단이 수단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1999), 그러므로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과 실제 신용카드 수납은 과표양성화라는 측면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는 소비심리 상승,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와 의무 가맹점 확대 및 연말소득공제혜택 부여 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에 의하면 1999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과 함께 신용카드의 사용 총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의 42.5%이라는 폭발적인 이용금액 증가가 단순히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지난해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122조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국세청, 2002).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 노출을 꺼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였더라도 카드 결제를 기피 또는 변칙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표 5 참조〉을 보면, 소매업, 음식·숙박, 병·의원, 학원, 전문인적¹⁾, 서비스, 기타로 분류했을 때, 학원의 가맹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가장 낮았다(국세청, 2002). 국세청(2002)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낮은 분야(업종)일수록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병·의원이

〈표 5〉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매	음식·숙박	병원	학원	전문인적	서비스	기타
총사업자수	202,334	73,636	31,104	16,218	16,538	37,391	2,624
가맹점수	155,089	68,596	30,392	11,160	14,277	26,531	1,973
가맹률(%)	76.6	93.2	97.7	68.8	86.3	71.0	75.2

출처: 국세청(2001년 12월 31일 현재)

〈표 6〉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결제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소매	음식	병·의원	학원	서비스	숙박
결제비율(%)	27.9	60.8	10.1	12.0	7.8	35.5

출처: 부산일보, 2002년 3월 4일자.

10.1%, 소매업이 27.9%, 음식업 60.8%, 숙박업 35.5%, 학원 12%, 서비스업 7.8% 등으로 음식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카드 결제 비율이 40%를 밑돌고 있고 특히 학원과 서비스 업종이 신용카드 결제하는 비율이 낮았다(〈표 6 참조〉).

특히 학원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률은 68.8%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맹률이 현저하게 낮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결제비율도 12%로 매우 낮게 나타나 다른 업종의 서비스에 비하여 서비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6월부터 병·의원, 학원, 음식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각종 학원(입시, 보습, 외국어, 유아예체능, 기술학원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계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의 3.78%에서 22.18%이라는(이성림, 2002) 점을 고려하면 보충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의 낮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재화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재정자원 배분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소득공제 혜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들 학원사업자의 소득의 탈세 가능성을 높여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의 신용카드 미가맹,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의 증가로 이어 질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교육서비스기관의 신용카드 사용 및 수취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민간교육서비스 기관의 신용카드 사용가능성과, 실제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육서비스 대금 지불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전문인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가, 배우, 성우, 가수, 음악·재단·무용 등의 교수, 운동선수,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 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미혼자녀의 보충교육서비스 이용현황 및 교육 서비스 비용의 신용카드 결제현황은 어떠한가?
- 2) 신용카드 사용가능 유무와 결제방법에 따라 보충교육서비스 비용에 차이가 있는가?

2. 보충교육비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충교육비의 개념은 도시가계연보의 자료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동일하다.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체능학원, 태권도 학원, 기타 체육계 학원, 사무·전산학원, 기타 보충교육, 도서관, 기타 교육비를 의미한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광주와 순천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한 후 2002년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광주와 순천지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92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부실한 16부를 제외한 58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충교육서비스 이용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1개월로 한정하였고 미혼자녀가 받은 보충교육서비스로 한정하였다.

4.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교육서비스 비용의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액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 명)

	구 분	빈도(백분율)		구 분	빈도(백분율)
연령	35세 이하	106(18.5)	지역	광주	184(31.4)
	36~40	215(37.5)		순천	402(68.6)
	41~45	203(35.4)		합계	586(100.0)
	46세 이상	50(8.7)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주부	253(44.6)
	합계	567(100.0)		전업주부	314(55.4)
학력	중졸 이하	87(15.1)	취업여부	합계	574(100.0)
	고졸	299(52.2)		전문직	63(11.9)
	대졸 이상	187(32.6)		경영관리직	45(8.5)
	합계	573(100.0)		전문기술직	45(8.5)
생활비 ¹⁾	100만원 미만	178(31.7)	남편직업	사무직	90(17.0)
	100~150만원 미만	155(27.6)		자영업	143(27.1)
	150~200만원 미만	112(20.0)		생산·기능직	70(13.3)
	200~250만원 미만	56(10.0)		판매·서비스직 등 기타	72(13.7)
	250만원 이상	60(10.7)		합계	528(100.0)
	합계	561(100.0)			

1) 생활비: 월소득에서 저축을 뺀 금액임

* 빈도수 틀린 이유는 무응답으로 인한 것임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는 36~40세가 37.5%로 가장 많았고 84.8%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가 150~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7 참조>).

IV. 연구 결과

1. 미혼자녀의 보충교육서비스 이용현황과 신용카드 결제

전체 586가계에서 162가계는 미혼자녀를 위해 보충 교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424가계에서 1700건의 보충교육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700건 중에서 67건은 보충교육서비스 요금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보충교육서비스 이용현황과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 신용카드 결제 비율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633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2002년 6월 한달 동안 이용된 총 1633건의 보충교육서비스 중에서 학습지가 472건으로 가장 많이 이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아노 218건, 영어 216건, 종합학원 186건, 컴퓨터 160건, 체육관련 135건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학습지 시장의 지속적인 급성장과 영어 교육에 대한 열풍을 잘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기간 1개월 동안 이용된 총 1633건의 보충교육서비스의 요금은 1억 94만 8천원이었으며 이중 60건의 보충교육서비스 요금 5백 70만 1천원 만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서비스의 월평균이용금액은 6만 1천 8백원이었으며 이중 학습지 관련 교육서비스의 이용요금 평균이 3만 5천 5백으로 가장 낮았고 종합학원의 이용요금 월평균이 11만 5천 8백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교육서비스 이용건수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율은 3.67%로 일반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로 알려진 12%(부산일보 2002년 3월 4일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체 교육서비스 이용금액의 5.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신용카드가 대중적인 대금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힘입어 소비자의 신용

<표 8> 보충교육서비스 이용 빈도 및 비용과 신용카드 결제현황

교육서비스 종류	이용 건수	서비스 비용 총액(원)	서비스 비용 평균(원)	신용카드 결제 건수	신용카드결제 총액(원)	신용카드 결제액 평균(원)	신용카드결제 비율(%)	
	A	B		C	D		건수A/C	금액B/D
국어	37	2,093,000	56,567.57	0	0	-	0	0
영어	216	17,086,000	79,101.85	20	2,103,000	105,150	9.26	12.31
수학	109	8,591,000	78,816.51	4	660,000	165,000	3.67	7.68
피아노	218	13,148,000	60,311.93	2	210,000	105,000	0.92	0.16
컴퓨터	160	6,527,000	40,793.75	0	0	-	0	0
종합학원	186	21,532,000	115,763.44	12	1,924,000	160,333.33	6.45	8.94
학습지 종류	472	16,733,000	35,451.27	19	634,000	33,368.42	4.03	3.79
음악관련(피아노 제외)	37	2,015,000	54,459.46	0	0	-	0	0
체육관련	135	7,938,000	58,800.00	1	50,000	50,000	0.74	0.63
기타	63	5,285,000	83,888.89	2	120,000	60,000	3.17	2.27
합 계	1633	100,948,000	61,817.51	60	5,701,000	95,016.67	3.67	5.65

카드를 이용한 대금지급이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 여전히 보충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보충교육서비스 선택권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다른 다양한 생활 서비스 영역과는 달리 신용카드의 수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보충교육서비스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보충교육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결제할 때의 신용카드 사용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총 60건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 중 영어, 종합학원 학습지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가 51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3건 이상 결제가 이루어진 영어, 수학, 종합학원, 학습지 중에서 학습지를 제외한 영어, 수학과 종합학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서비스비용의 평균이 서비스비용의 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학습지는 대부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회사에 의해서 제공이 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요금의 결제가 여타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쉽기 때문에 다른 보충교육서비스의 요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어, 수학과 종합학원의 경우도 학습지와 비슷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결제가 다른 보충교육서비스 영역보다는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개인교습의 형태로 제공되는 피아노와 피아노를 제외한 음악관련 보충교육서비스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관련된 보충교육서비스에서 신용카드의 결제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비록 컴퓨터관련 보충교육서비스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평균 서비스 비용이 40,793원으로 학습지 다음으로 낮고 학습지의 경우에 학습지 관련 교사

가 집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충교육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컴퓨터 학원의 경우 5만원 이하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에 일부러 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다른 보충교육서비스의 경우는 소규모 자영업의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극히 일부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이 급속히 팽창한 것은 사실이다. 민간가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9%, 99년 16%, 2000년 26%대로 상승하였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으며(한국일보 2001년 1월 14일자), 신용카드의 사용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 신용카드 사용가능성 여부와 결제 방법에 따른 보충교육서비스 요금의 차이

신용카드 수납 여부와 신용카드 결제여부에 따라서 보충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이 다른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충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곳의 평균비용보다 높으며 이는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충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이 현금으로 결제한 평균비용보다 34465원 높고 이는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도 고가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 신용카드로 재화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보다 용이한 것처럼 보충교육서비

〈표 9〉 신용카드 사용가능성과 결제방법에 따른 교육서비스 비용

(단위 : %)

		평균(원)	표준편차	F-value, t-value
신용카드 사용가능성	사용가능(n=253)	70,758.89	63358.59	5.277**
	사용불가(n=778)	59,422.88	44821.97	
	모르겠다(n=602)	61,154.49	46166.97	
결제방법	신용카드결제(n=60)	95,016.67	83598.21	29.390***
	현금결제(n=1573)	60,551.18	46489.62	

p < 0.01, *p < 0.001

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실제로 교육서비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교육서비스 비용이 높은 곳에서 신용카드 가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충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교육서비스 평균비용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기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신용카드 수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서비스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교육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반 생활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납 여부가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용카드 수납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증진시키는 것은 보충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통한 가계소득의 향상 효과와 더불어 보충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과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조세징수의 형평성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세 당국은 보충교육서비스 제공

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생활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충교육서비스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로 서비스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용카드 수취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여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이용 요금 결제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수납가능성과 보충교육서비스 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조사가계 586가계에서 162가계는 미혼 자녀를 위한 보충 교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424가계에서 1700건의 보충교육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교육서비스의 이용요금은 1억 94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60건의 교육서비스 요금 5백 70만 1천원만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전체 교육서비스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율은 3.67%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체 교육서비스 이용금액의 5.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충교육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과세기관이 불법

탈루소득의 양성화에 사용하여 정부의 세수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조세부과의 형평화에 기여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복지향상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교육서비스 평균비용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곳의 보충교육서비스 평균비용보다 높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이 현금으로 결제한 교육서비스의 평균비용보다 34465,49원 높았다.

이러한 조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신장은 결제수단의 투명화로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보충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신용카드의 결제여부는 보충교육서비스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볼 때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평과세와 세금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충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도 보충교육서비스 기관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세 당국은 보충교육서비스 제공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생활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충교육서비스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로 서비스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용카드 수취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보충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이용 요금 결제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신용카드 사용 취약분야에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을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적극적으로 신고 연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보충교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비용을 분석하였는데 200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공제 받는 반면에 직불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충교육서비스기관의 직불카드 가맹점 실태 및 사용가능성 여부도 후속연구로 조사해 볼 수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의 초과지출이나 충동구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카드이므로 엄밀하게 보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충교육서비스 결제 건수가 적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집단과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소비자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지역이 광역시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특별시나 시골지역 등을 염두 해 볼 때 편차가 클 수 있어 연구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괴외비실태조사결과.
 국세청(2001). 국민총소득,국민가처분소득, 민간최종소비 지출, 신용카드 이용금액. (<http://www.nts.go.kr>)
 국세청(2001).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추진계획. (<http://www.nts.go.kr>)
 국세청(2001).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안내. (<http://www.nts.go.kr>)
 국세청(2002).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 사용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 (<http://www.nts.go.kr>)
 김동대, 현창부(1997). 신용카드 거래 과세실태. 감사원 주요감사활동.
 녹색소비자연대(1999). 신용카드 가맹점 실태조사.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http://ns.go.kr>)
 부산일보사 2002년 3월 4일자, 병의원, 학원 등 가맹점 카드 거부면 형사처벌 (<http://Peace.Pusanilbo.com>).

- 우옥현(2000).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국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옥현(2001).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국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립(2002).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영호(1994).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사용의 실태. 소비자문제연구, 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97-111. 여신금융협회(2002).
- 임정빈, 이영호, 최자영(1997). 신용카드의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01-118.

(2003년 10월 9일 접수, 2004년 1월 30일 채택)